

금융위기 기간 대기업의 고용 분석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의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500인 이상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각각 7.1%, 5.7%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 2.9%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증가율은 2000~2008년 평균 증가율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된 2010년 대기업의 고용 확대는 우리 경제의 평균 고용회복 수준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종업원 수는 2011년 4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3.5% 증가하여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증가율 2.1%의 6.4배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총 임금근로자 증가분 36만3천 명의 29.7%에 해당하는 10만 7,671명을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1. 문제제기

- 금융위기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금융위기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위기 직후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2011년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세가 2010년 하반기에 비해 약화된 것이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있음.
 -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변화 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지를 판단하고자 함.
 - 또한 최근 취업자 증가 중 대기업에 의한 부분을 파악하여 최근 고용회복세 중 대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함.

2. 고용 현황

- 크게 위축된 민간부문 고용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회복세가 다소 위축됨.
 - 금융위기 동안 정부부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전체 취업자 감소세는 크지 않았음.
 -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공공부문 취업자는 전년 대비 평균 19만2천 명 증가하였고 2009년 3분기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무려 32만2천 명 증가하여 27.4%의 증가율을 보임.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009년 평균 7만2천 명 감소에 그침.
 - 그러나 금융위기 시작과 함께 민간부문 취업자는 크게 감소
 - 금융위기 시작과 함께 감소세로 돌아선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09년 평균 26만3천 명 감소
 - 민간부문 취업자는 2009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32만3천 명 감소하여 민간부문 고용 상황이 최악에 이룸.
 - 민간부문 취업자는 2010년 1분기 이후 회복 중이나 최근에 회복세가 다소 둔화
 - 2010년 1분기 민간부문 취업자는 증가세(10만8천 명)로 돌아선 이후 2010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56만7,000명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1분기 민간부문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42만2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대비 다소 축소됨.

3. 대기업의 고용 변화

-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 금융위기 시작 직후 2009년 대기업 고용은 중소기업의 2.4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임.
 - 2009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고용은 전년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나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전년에 비해 11만764명 증가하여 7.1%의 증가율을 보임.
 - 이는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증가율 2.9%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거 2000~2008년 평균 대기업 고용 증가율이 중소기업의 절반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됨.
 -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도 전년에 비해 5.7%(5만5,155명) 증가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함.

- 금융위기 시작 직후 중소기업 고용 증가율은 과거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대기업은 과거 평균과 비교해 약 5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009년 고용 증가율은 2.9%로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0~2008년 평균 고용 증가율(2.8%)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평균 1.4%의 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도 2000~2008년 평균 고용 증가율(1.7%)의 약 3.3배에 달하는 5.7%를 기록

<표 1> 사업체 규모별 고용 증가율

사업체 규모	2009년	2000~2008년 평균
1~299인 (2000~2008 평균 대비)	2.9% (1.0배)	2.8%
300~499인 (1~299인 대비) (2000~2008 평균 대비)	2.3% (0.8배) (0.6배)	3.6% (0.5배)
500인 이상 (1~299인 대비) (2000~2008 평균 대비)	7.1% (2.4배) (4.9배)	1.4% (0.5배)
1000인 이상 (1~299인 대비) (2000~2008 평균 대비)	5.7% (2.0배) (3.3배)	1.7% (0.6배)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된 2010년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 증가율은 경제 전체 취업자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¹⁾
 -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된 2010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은 경제 전체 고용 증가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상위 30개 기업집단의 고용은 2010년 4월²⁾ 기준 96만9,3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율 1.7%의 약 2.4배
 -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기업집단의 종업원 수(67만4,255명)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5,106명(삼성 1만2,789명, LG 1만1,529명 등) 증가하여 5.5%의 증가율을 보임.
 - 상위 15개 기업집단의 종업원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1.7%)의 3.2배,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율(1.3%)의 4.2배에 달하며 임금근로자 증가율(3.9%)과 비교해도 약 1.4배 수준

1) 통계청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 자료는 현재 2009년까지만 가용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자료는 2009년 이후 매년 4월 기준으로 자료를 발표한다.

- 2010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중 고용 증가 상위 15개 기업집단은 우리 경제 전체 취업자 증가의 8.8%를 담당함.
 - o 2010년 4월 기준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기업집단의 고용(67만4,255명)은 전체 취업자의 2.8%에 불과하지만 전체 취업자 증가(40만 명)의 8.8%에 달하는 3만5,106명을 담당
 - o 30대 기업집단 역시 취업자 대비 고용 비중은 4.1%이지만 취업자 증가의 9.2%에 해당하는 3만6,982명을 담당

<표 2> 2010년 대기업의 고용창출

구 분	2009. 4	2010. 4			2002~2008년 평균 증가율
			증가폭	증가율	
30대 그룹(명)	932,367	969,349	36,982	4.0%	3.9%
고용 증가 상위 15개 그룹(명)	639,149	674,255	35,106	5.5%	7.2%
취업자(천 명)	23,524	23,924	400	1.7%	1.3%
민간부문 취업자(천 명)	22,601	22,904	303	1.3%	1.2%
임금근로자(천 명)	16,353	16,994	641	3.9%	2.5%

주: 2009년 이후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자료는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09년 이전 자료는 연간 평균치를 사용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시스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1년 4월 기준 우리 경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의 29.7%를 대기업 상위 15개 그룹이 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 증가율은 2002년 이후 항상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o 2002~2011년 사이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대기업³⁾의 고용 증가율은 평균 7.4%로 임금근로자 증가율(2.5%)의 약 3배, 취업자 증가율(1.2%)의 약 6.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
 - o 우리 경제의 취업자가 감소한 2003년(-0.1%) 및 2009년 4월(-0.3%)⁴⁾에도 상위 15개 대기업의 고용은 5%에 가까운 성장을 보임.
 - 2011년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증가 36만3,000명의 29.7%에 해당하는 10만7,600여 명을 담당
 - o 2011년 4월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대기업의 고용은 13.5%(삼성 1만9,737명, LG 1만7,466명, 현대자동차 1만4,150명, SK 1만1,770명 등 총 10만7,671명) 증가함.
 - o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 증가율(13.5%)은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증가율 2.1%의 6.4배에 달하고 취업자 증가율(1.6%)의 8.4배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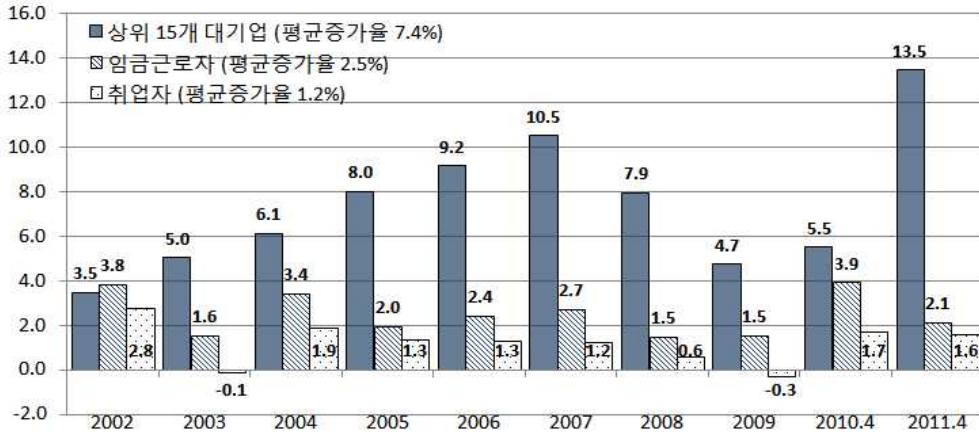
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매년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자료는 2010년 4월 기준이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상위 15개 대기업, 임금근로자 및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율은 매년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 2011년 4월 기준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은 90만7,616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2%이지만 임금근로자 증가 36만3천 명의 29.7%에 해당하는 10만7,671명을 담당함.

<그림 1> 대기업의 고용창출 추이(2002~2011년)

(단위: %)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2009년 이후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증가율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시스템

<표 3> 2011년 고용창출 상위 15개 기업집단

(단위: %, 명)

기업집단명	종업원 수		종업원 증감	종업원 증감률
	2010. 4	2011. 4		
삼성	207,532	227,269	19,737	9.5
LG	103,543	121,009	17,466	16.9
현대자동차	122,619	136,769	14,150	11.5
SK	35,812	47,582	11,770	32.9
롯데	56,166	64,710	8,544	15.2
GS	21,596	28,980	7,384	34.2
CJ	29,808	34,808	5,000	16.8
KT	52,722	56,547	3,825	7.3
포스코	29,783	33,561	3,778	12.7
한화	26,531	30,174	3,643	13.7
현대중공업	35,457	38,934	3,477	9.8
효성	14,598	17,422	2,824	19.3
두산	19,914	22,299	2,385	12.0
한진	25,669	27,871	2,202	8.6
하이닉스	18,195	19,681	1,486	8.2
15개 전체	799,945	907,616	107,671	1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시스템

<표 4> 2011년 대기업의 고용창출

구 분	2010. 4	2011. 4		2002~2008년 평균 증가율	
		증가폭	증가율		
30대 그룹(명)	969,349	1,061,364	92,015	9.5%	3.9%
고용증가 상위 15개 그룹(명)	799,945	907,616	107,671	13.5%	7.2%
취업자(천 명)	23,924	24,303	379	1.6%	1.3%
민간부문 취업자(천 명)	22,904	23,339	435	1.9%	1.2%
임금근로자(천 명)	16,994	17,357	363	2.1%	2.5%

주: 2009년 이후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자료는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09년 이전 자료는 연간 평균치를 사용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시스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금융위기 및 회복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창출에 인색했다는 지적과는 달리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우리 경제의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수준이었음.
 - 금융위기 직후 현재까지 대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우리 경제의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수준이었음.
 -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과거 평균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고용 증가율의 2.5배에 해당
 -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된 2010년에도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우리 경제 취업자 증가율의 6.6배, 임금근로자 증가율의 3.8배에 달함.
 - 2011년에도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은 지속되어 2011년 4월 기준 임금근로자 증가의 약 30%를 대기업에서 담당함.
 -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